#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 가슴 울리는 발라드 '진한 커피' 7집 발매

가슴을 울리는 발라드를 모은 편집음반인 '진한 커피' 7집이 최근 발매됐다.

'진한 커피'는 일반적으로 편집 음반은 질이 떨어진다는 편견 속에서도 1999년 1집을 시작으로 10년간 총 130만장에 이르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1집 '첫사랑', 2집 '슬픈 인연', 3집 '슬픈 고백' 등 음반마다 부제를 갖고 있어 주제에 맞는 곡들이 수록됐다.

7집의 부제는 '고백'이다. 이번 음반에는 케이윌의 '눈물이 뚝뚝'을 비롯해 김범수의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이은미의 '애인있어요', 임재범의 '만남', 태연의 '만약에',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등 히트곡들이 담겼다.

### '민머리' 홍석천 상투 틀고 수염 붙이다

# "어때요, 남자답죠?"

### OCN 사극서 군교역으로 등장

### "14년만에 가발 썼는데 이렇게 어울릴 줄이야"

"저도 상투 틀고 수염 붙인 제 모습이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어요. 사극 분장을 하니 잘생겼다는 말도 들어요.(웃음)"

지난 14년간 '민머리'에 동그란 안경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홍석천(38)이 상투 튼 가발과 수염 분장에 안경을 벗어 던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OCN 8부작 퓨전추리극 '조선추리활극 정약용'을 통해 데뷔 이래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한 그는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파격적인 시도라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긴장했지만 다행히 욕을 먹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제는 사극에서 러브콜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극 분장도 재미있고, 코믹 감초 연기도 신이 난다"며 웃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관아의 군교 철두 역을 맡았다. 허풍이 심하고 늘 헛다리만 짚는 인물로 정약용(박재정 분)과 다모 설란(이영은)이 항상 그의 뒤처리를 맡게 된다.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그는 "우리 과에 임현식, 이문식 선배가 있는데 두 분 다 사극에서 빼어난 감초 연기를 하신다"며 "내가 그 두 분의 바통을 이어 우리 과가 배출한 세 번째 사극 감초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실제로 그는 사극 분장이 잘 어울린다. 그동안은 현대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로 어필해왔지만 가발과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다.

"제가 1995년에 머리를 밀었어요. 당시 광고계에서 외국 모델을 못 쓸 때였는데, 감독이 저보고 머리통이 예쁘니 한번 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거기다 태닝을 좀 해서 흑인 분위기가 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당시 머리를 밀고 10개의 광고에 출연했으니까요. 그 후 계속 밀고 살았는데 사극을 하면서 14년 만에 가발을 써보게 됐네요. 다행히 어울린다는 소리를 들어요."

홍석천은 요즘 소리소문없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MBC '보석비빔밥'에 진지하고 모범적인 드라마 PD로 출연 중이고, MBC 아침드라마 '멈출 수 없어'에서는 여성성이 강한 의상 디자이너를 연기하고 있다.

OCN 토크쇼 '품절녀의 블로그'에는 청일점 패널로 출연하게 된다. 그런데다 레스토랑 사업도 번창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이태원에 여섯 번째 점포를 오픈했다. 태국, 중국, 이탈리아, 지중해 음식 레스토랑과 티 카페에 이어 라운지 바를 오픈한 것.

"다들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도 잘되고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바쁘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 없네요."

홍석천은 "커밍아웃 이후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일이 잘 안돼 고민한 시간도 있었지만 노력하고 기다리니 이런 날도 오는 것 같다"며 "연기와 사업 모두 잘해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까

### 시청률 30% 돌파 '다함께 차차차' 조안·오만석

1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신욱(홍요섭 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의 가족 일부가 알게 됐고, 같은 기간 기억상실증에 걸려 다른 가정을 일구며 살던 신욱은 기억 을 거의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이 신욱이 재혼을 통해 얻은 딸 나윤(조안)과 신욱의 조카 진우(오만석)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다. 신욱의 전처이자 진우의 작은 어머니인 윤정(심혜진), 신욱의 어머니 정녀(김영옥)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과연 나윤과 진우는 결혼할 수 있을까.

1일 여의도 KBS별관에서 만난 오만석과 조안은 "요즘 어딜 가든 '결혼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식당, 목욕탕, 커피숍 등 장소와 상관없이, 또 고등

### "복잡하고 가슴아픈 사랑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물어보신다"며 웃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둘의 결혼을 응원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응원하세요. 결혼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 '꼭 해야한다'고들 하세요.(웃음)"

그런데 아직 대본상으로는 둘의 결혼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작진은 "어떻게 될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답했다.

오만석은 "작은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오셨고, 작은 엄마도 계셔서 진우와 나윤이 결혼하려면 많은 사람이 적지않은 상처를 받게돼 가슴앓이 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가슴앓이를 많이 하지 않고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는데 앞날이 정해지지 않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조안은 "나윤이가 현재 굉장히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다. 진우 선배에 대한 사랑과 엄마, 아빠에 대한 죄책감 등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웃었다.

두 배우는 모두 극 중 상황이 실제 상황이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만석은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안은 "내가 원래 로맨틱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모든 것을 사랑 위주로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상황이어도 결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진우와 나윤은 피는 안 섞이지 않았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9일 시청률 14.8%로 출발한 '다 함께 차차차'는 4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시청률 30%를 돌파했다. 6개월 예정으로 출발해 이달 말 종영 예정이지만 현재 상승 무드라 1~2개월은 더 방송될 전망이다.

이 드라마의 문보현 CP는 "일일극이 보통 6개월을 예상하지만 KBS 일일극은 평균 8개월 정도씩 방송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다함께 차차차'도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올해는 넘겨 계속 방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석은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남는 사진 있으면 사인 좀 해서 달라.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하시더라. 우리 드라마가 인기는 인기인 모양"이라며 웃었다.

그는 "사람 사는 일이 어느 한 쪽이 기쁘면 한쪽은 슬프게 마련인 것 같다. 마냥 모두가 좋을 수는 없다. 다만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가 크지 않게, 작은 상처로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드라마가 건강한 웃음과 건강한 눈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